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8. 2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안보전문기업, 탈레반 획득 미군 무기 '他 테러단체' 유입 우려
 - 8.19 美 안보전문자문회사(CNA)는 미군이 아프간軍에 지원했던 무기*를 탈레반이 상당수 획득했으며 同 군사자산이 세계 여타 지역에 위치한 테러단체에 유입될 가능성 우려
 - * 기관총 7,000여정, 험비차량 4,700대, 수류탄 2만여발 등
- 美, 미군의 '아프가니스탄 대피작전' 위협 조직으로 ISIS 지목
 - 8.23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은 자국민과 아프가니스탄 동맹국 시민 철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지만, 자국군이 현지에 오래 머물수록 ISIS의 미군·민간인 공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 표명
 - * ISIS는 오랫동안 미국의 해외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혀 왔으며, 지난 수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아파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자행

유 럽

- 이탈리아, 아프간 사태 논의 'G20 특별회의' 추진
 - 8.19 「마리오 드라기」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10.30~31간 로마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·러시아 등 주요 정상들을 상대로 아프간 사태 관련 'G20 특별회의'* 개최 타진
 - * 아프간 3대 이슈인 △난민 △테러 △인권 관련 국제사회 입장 조율 및 방안모색
- G7, 아프간 사태 논의 긴급 정상회의 개최
 - 8.23 G7 의장국인 「보리스 존슨」 英 총리는 탈레반의 아프간 정권 장악 사태 관련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(9.24)하며, 경제제재·지원 중단, 미군 철수 시한 연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
 - * 「존슨」 총리는 “안전한 철수 보장과 아프간 국민들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필수적”이라고 강조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네시아, 테러모의 테러단체 조직원 53명 검거

- 8.21 印尼 경찰은 독립기념일(8.17)에 맞춰 테러를 모의하던 테러단체 ‘제마 이슬라미야’(JI, 알카에다 연계조직) 조직원 50명과 ‘자마 안샤룻 다울라’ (JAD, ISIS 연계조직) 조직원 3명 등 총 53명을 검거

* JI : UN·美 국무부 지정 테러단체('02.10월), JAD : 美 국무부 지정 테러단체('17.1월)

○ 정부, 軍 수송기 3대 투입해 아프간人 378명 국내 이송

- 8.26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사관·한국병원 등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했던 현지인 및 그 가족 378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軍수송기 3대를 보내 국내로 이송

아프리카

○ 민주콩고, 반군 퇴치 위해 ‘美 특수부대’ 주둔 허용

- 8.19 「펠릭스 치세케디」 민주콩고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도 킌샤샤에서 반군인 민주군사동맹(ADF)의 퇴치를 위해 미군 특수부대 주둔을 허가했으며, 同 부대는 민주콩고 정규군을 지원할 예정

* 민주군사동맹(ADF)은 '96년 우간다에서 결성, 민주콩고 동부지역에서 30여년간 활동

○ 나이지리아, 무장괴한 납치 고교생 15명 석방

- 8.23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7.5 카두나州에서 무장괴한에게 납치되었던 베텔침레고 학생 121명 중 15명이 몸값 지불후 풀려났으며, 추가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

* 납치된 121명 학생 중 56명이 탈출하거나 석방되었고, 현재 65명이 남아있다고 언급

필리핀 홀로섬(Jolo) 발생 연쇄 폭탄테러

- '20.8.24 필리핀 남부 술루州의 홀로섬* 중심가 식료품점과 인근 은행 앞에서 2차례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, 軍·警·민간인 등 15명 사망·75명 부상
 - * 필리핀은 인구 대다수(83%)가 가톨릭 신도이나, 홀로섬은 무슬림 밀집 거주지임
 - 1차 폭발 : 식료품점 앞 주차 오토바이에 부착된 사제폭탄 폭발(11:54)
 - 2차 폭발 : 불룩하게 옷을 입은 여성이 은행에 진입 시도중 군인이 수상히 여겨 제지하자 몸에 지닌 폭탄을 터트려 자폭(12:57)
- 필리핀 당국은 이슬람 무장단체 '아부사야프'*(ASG, Abu Sayyaf Group)가 '20.7.6 정부군과 교전중에 사망한 지도자 「사와드잔」의 복수를 위해 同 테러를 감행했을 것으로 추정
 - * ISIS 연계세력으로 '19.1월 홀로섬 성당 자폭테러 자행 자처(사망 23·부상 102명)
- 한편, 테러 발생 1주 후 필리핀軍이 술루州 밀림에서 '아부사야프' 조직원 추적중 교전이 발생해 10여명 사상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아부사야프 그룹(ASG) >

- (결 성) '검을 가진 아버지'라는 뜻으로,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(MILF)간 협상추진에 반발한 MILF 일부 세력이 민다나오지역에서 '91년 결성
 - 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년), UN·영국('01년), 캐나다('03년), 필리핀('15년)
- (목 표)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지역에 이슬람 독립국가 건설
- (조직규모) 약 300여명('20.2월 美 국방부 추산) / 약 350명('19.6월 필리핀 보안당국 추산)
- (활동지역) 민다나오섬 잠보앙가, 술루州 등
- (참고사항) △ISIS 필리핀 지부('16.4월 선언)의 핵심세력 △제마이슬라미야(JI)와 자금·조직원·테러수법 교류
 - * 규모는 작으나 필리핀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위협적인 조직으로 평가
 - ** '15년 이후 선박 등 납치 행위로 조직자금을 조달하면서 필리핀 해역 상황을 아프리카에 버금가는 해적피해 빈발지역으로 악화시킨 주범